

□ 特 輯

國立中央圖書館 再建을 위한 位置設定에 관하여

鄭 秘 謨
中央大 圖書館學科 教授

1. 머리말

現 國立中央圖書館은 當初에 日本의 殖民地政策의 一環으로 그의 殖民地化를 正當化하기 위한 社會教育 機關으로서, 또한 朝鮮總督府의 韓國統治를 위한 參考 圖書館으로 1923년에 設立되어, 1945年 解放에 이르기 까지 國內外의 많은 圖書와 기타 文獻을 蒐集保存하고 所期の 機能을 발휘한 바 있다. 그리하여 1945年 까지 蒐集整理된 藏書數는 284,467冊¹⁾으로 年平均 約 13,000冊이 增加하였다.

그러나 現在의 國立中央圖書館은 建物과 施設이 日 帝末期의 것 그대로이며, 近 30年 동안 남기만 하였고, 解放以後부터 現在까지 增加된 藏書數는 231,911冊, (73年 4月1日 現在 516,378冊)²⁾으로 年平均 增加冊數는 不過 8,282冊이다. 解放後 政局의 混亂과 6·25戰亂으로 인한 約 10年 間의 空白期間은 있었다 할지라도 增加된 藏書數의 約半數는 1965年 3月부터의 國內 新刊圖書의 納本制³⁾에 의하여 實費補償(定價의 半額)으로 蒐集된 國內出版物이라고 보면 資料購入이 얼마나 微弱하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第2次 大戰以後 學術의 發展과 出版文化의 發展으로 인한 文獻洪水時代에 한 나라의 代表的인 國立中央圖書館의 年平均 藏書增加數가 日本殖民地下의 總督府 圖書館 當時의 그것의 겨우 半數餘에 不過하다고 하는 것은 民主主義 自主 獨立國家로서의 一大恥辱이 아닐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建物과 施設의 老朽, 書庫의 狹小와 藏書의 密集으로 인한 文獻의 秩序 維持不能과 그의 腐蝕, 「스페이스」의 狹小로 인한 奉仕의 低下, 財政下足으로 인한 法的 機能⁴⁾의 障得 등으로 現在의 國立中央圖書館은 그의 本然의 機能을 거의 수행하기 어려운 現實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圖書館 當局者들은 數年前부터 圖書館 再建

의 必要性을 切感하여 여러 가지 研究 調査한 結果 몇 가지 根據資料를 基礎로 하여 圖書館 再建을 關係當局에 建議한 바 있다. 政府에서는 이를 어느정도 認定하고 現 國立中央圖書館의 地를 賣却하여 그 代金을 바탕으로 하되 多少의 資金을 投資하여 再建할 方針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新築 候補地로 汝矣島와 南山이 物望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本考는 이에 관한 問題點을 指摘하고 그 解決策을 提示하고자 하는 것이다.

2. 國立中央圖書館의 位置

世界各國의 國立中央圖書館은 자기 그 나라의 過去부터 現在까지의 文化의 總體를 代表하며, 그 自體가 國力의 尺度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現實의 機能은 政府의 各 行政部處의 實務에 관한 文獻參考 奉仕와 國民大衆에 대한 教育的 또는 學術的인 奉仕業務를 수행하는 機關이다.

그러므로 첫째 國立中央圖書館은 自由로운 利用의 便宜를 위해서 交通이 便利한 首都 서울의 中心地로서 中央의 各 行政部處의 中央地點에 位置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둘째로 週邊環境이 知的 精神的인 活動에 快適하고 地가 넓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實際的인 例로서 世界各國의 主要 國立中央圖書館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美國: 美國의 경우 議會圖書館이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을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國會議事堂內에 附設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別途의 獨立的인 建物과 施設로서 Washington, D.C.의 中央地에 位置하고 國務省과 國會 및 大法院 등의 中間地點에 있다. 이들은 相互間 1 km 未滿의 距離에 位置하고 있으며 交通이 便利하고 地地面積은 3,588 에이커로서 이를 坪

數로 換算하면 約 44,000 坪이 된다.

호주: 호주의 國立中央圖書館은 首都인 Sydney의 中心地인 Macquaire Street에 位置하고 있으며, 國會議事堂과 中央官署와의 中間地點으로서 國立中央圖書館에서 中央官署까지는 約 1,500m, 國會議事堂까지는 約 700m의 距離에 있으며, 相互間에 交通이 便利한 位置에 있다. 圖書館의 地地面積은 57,400m²로서 坪數로 換算하면 約 19,000 坪이다.

日本: 日本의 國立中央圖書館은 國會圖書館이 그 機能을 겸하고 있는데, 國會圖書館은 東京의 中心街인 Chiyoda-ku Nagata-cho에 位置하고 있으며, 中央官署 및 宮城과의 距離는 100~500m의 間隔으로 인접해 있다. 그리고 國會圖書館은 國會議事堂과는 別途로 獨立施設로 되어 있으며 그 面積은 約 91,000 坪이나 된다.

英國: 英國의 國立中央圖書館은 首都 London의 中心街인 Store Street에 位置하고 있으며 國會 및 中央行政官署와 인접해 있고 交通이 便利하며 地地面積에 대해서는 根據資料가 없으나 數萬坪이 될 것으로 推算된다.

비올빈: 비올빈 國立中央圖書館은 首都 마닐라의 中心地인 Luneta 公園內에 位置하고 있으며 立法部 財務部 農林部 등의 中央行政官署와 인접해 있다. 물론 交通이 便利하고 週邊의 風致가 좋으며 地地面積은 約 26,000坪이다.

以上에서 主要한 各國의 國立中央圖書館의 實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立中央圖書館의 位置는, 첫째 首都의 中心地여야 하며, 둘째 交通이 便利해야 하며, 셋째 各 中央行政官署와 인접해야 하며, 넷째 週邊環境이 快適해야 하며, 다섯째 地地面積이 넓어야 한다. 이러한 다섯가지 事項이 가장 바람직한 必須要件이다.

3. 汝矣島와 南山

以上과 같은 要件을 前提로 해서 볼 때 汝矣島나 南山에 國立中央圖書館을 新築하려는 政府當局의 豫定說은 우리 나라의 圖書館 專門人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우선 汝矣島로 말하면 國會議事堂이 新築되고 있으며 그안에 國會圖書館이 附設된다. 물론 國會圖書館은 國會에 대하여 立法資料를 奉仕하는 것이 主가 되지만 두개의 代表的인 圖書館이 인접하게 된다. 그리고 역시 汝矣島는 하나의 섬(島)이기 때문에 交通이 不便하므로 一般市民들과는 동떨어지게 되며 各 行政官署와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진다. 그러므로 만약 美國의 경우나 日本의 경우처럼 國會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을 하나의 圖書館으로 統合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國立中央圖書館은 國民大衆에 대한 奉仕의 比重이 더욱 크

國立中央圖書館 再建을 위한 位置設定에 관하여 (41)

고 또한 行政部處에 대한 文獻參考奉仕의 比重이 더욱 커야 하므로 國會議事堂과는 別途로 行政部處와 가까운 市內의 中心街에 設立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는 國立中央圖書館의 汝矣島 移館說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理解할 수 없다. 혹시나 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을 생각해 본다.

첫째 政府當局은 汝矣島가 앞으로 서울市の 中心地點이 될 것이라는 豫見 때문에 加급적 많은 文化施設을 汝矣島로 誘致하려는 計劃에서 汝矣島說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汝矣島가 앞으로 서울市の 中心地點이 된다 할지라도 漢江全體를 覆蓋工事を 하지 않는 限 交通便宜問題는 解決되지 않으며, 中央 行政官署와의 距離問題도 解決되지 않는다.

둘째로 汝矣島의 地地單價가 市內 中心街에 比하면 훨씬 낮으므로 政府當局은 豫算節約을 위한 方便으로 汝矣島를 選定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豫算節約은 賢명한 施策이라고 볼 수 없다. 동일한 規模의 建物を 新築한다면 市中 어디에 建立하거나 建設費는 동일한데 다만 地地代金 때문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知識人들이나 國民大衆의 募金運動에 의해서라도 배꿀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南山은 風致와 展望도 좋고 快適한 公園地帶이며 서울市の 中央地로서 한가한 사람이 文學書나 읽고 온종일 研究나 하기에 적당할 場所이다. 그러나 한편 너무나 高地帶로서 交通이 不便하며 분주한 公務員이나 一般市民이 時急히 圖書館을 利用하자면 택시를 타야만 한다. 그리하여 서울市の 中央地에 있으면서도 事實上 利用이 몹시 不便한 곳이다. 그리고 南山의 既存 建物は 建物の 構造自體가 圖書館建物로서는 쓸모가 없으며, 그 地形上 建物の 改造나 書庫 등을 위한 增築도 困難하다.

그러므로 汝矣島나 南山의 國立中央圖書館 再建을 위한 候補地로서는 交通上으로나 位置上으로나 地形上으로나 적당하지 못하다.

4. 새로운 候補地

筆者 個人的으로 欲心껏 말해 본다면 武橋洞의 遊與街一帶를 再開發하던가, 아니면 安國洞 노타리 西北一帶의 住宅街를 再開發하여 여기에 國立中央圖書館을 再建했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妄想일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現實的이며 可能한 國立中央圖書館 再建을 위한 候補地를 말하자면, 첫째 宗廟의 公園一帶와, 둘째로 現在의 서울大學校 文理大캠퍼스가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宗廟: 우선 鍾路三街와 四街 사이에 位置한 宗廟는 首都의 中央에 位置하고 있으며 地形이 평탄하고 交通

이 便利하므로 一般市民의 利用이 便利하며, 中央의 行政官署와 가까운 位置에 있으므로 여러가지 行政的文獻參考資料 奉仕가 便利하며, 조용하고 風致가 좋은 古宮이므로 環境造成을 念慮할 必要도 없다. 한편 由緒깊은 古宮內에 文化的으로 가장 象徴이 되는 國立中央圖書館을 設立하므로써 外國人에 대한 자량이 된다. 또한 地地가 넓어서 後日의 擴張에 따르는 增築의 餘地가 많으며, 國有地이므로 行政的으로 地地의 轉用이 容易하다. 그러므로 宗廟는 國立中央圖書館의 再建을 위한 가장 理想的인 候補地가 될 것이다.

서울大學校 文理大캠퍼스: 서울大學校 文理大캠퍼스도 宗廟와 마찬가지로 都市의 中央地로서 交通이 比較的 便利한 位置에 있다. 地地도 넓고 周邊이 조용하며 中央官署와의 距離도 멀지 않으므로 國立中央圖書館의 再建候補地로서는 큰 손색이 없을 것이다.

서울大學校가 冠岳山 캠퍼스로 移舍하게 되면 이곳은 아파트가 建立될 豫定이라고 하는데 現 文理大 캠퍼스만은 여기에서 除外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高層建物로 세워질 화려한 아파트의 숙속에 既存建物을 그대로 國立中央圖書館으로 使用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할 것이며, 既存建物이 주로 大學의 講義室이므로 現代의인 圖書館建物로 改造하여 圖書館의 機能의 構造를 이루기는 極히 困難하다. 그러나 第2候補地는 될 수 있다.

5. 結 語

國立中央圖書館의 再建을 위하여 얼마나 理想的인 位置를 選定하고 어떠한 規模의 얼마나 훌륭한 建物을 建立하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資金을 投資하여 資料를 蒐集하고 어떻게 運營하느냐 하는 것은 行政當局의 圖書館에 대한 重要性의 認識度에 달려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行政當局이 現代의 圖書館의 價値를 얼마나 높이 評價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行政當局이 圖書館의 價値를 올바르게 認識한다면 數年前에 慶福宮內에 數拾億원의 資金을 投入하여 國立博物館을 建立했던 것처럼 또한 熒忠洞公園內에 國立劇場을 再建한 것처럼 宗廟와 같은 古宮內에 博物館이나 國立劇場 보다 몇배의 資金을 投資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을 새로이 建立하고 外國의 例에 못지 않게 훌륭한 圖書館을 運營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序頭에서 말한 바와 같이 自主獨立國家로서의 우리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이 日本의 植民地政策의 一環으로 設立된 圖書館을 단 한坪의 增築도 없이 近 30年 동안을 그대로 使用하고 있으며, 年平均 藏書增加數가 日本植民地地下의 總督府圖書館 當時의 年平均 藏書增加數의 切半餘에 不過한 그 羞恥스러운 現狀을 深刻하게 생각했다면 政府가 이를 現在까지 放置했을 理由가 없

다.

現代의 圖書館은 博物館처럼 過去의 우리 先祖들의 文化遺產을 기리 保存하고 이를 宣揚하기 위한 文化的 象徴의 存在價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過去부터 現在 또는 永遠한 未來까지 우리 文化的의 總體로서 이를 바탕으로 學術創造와 文化的 效果的인 發展을 위하여 直接 敎育과 모든 學術的인 研究에 또한 行政的인 研究에 奉仕하는 生動的인 偉力을 가진 存在이다.

産業의 發展만이 國家繁榮의 길이라고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産業의 發展을 위하여 先進外國과의 技術提携를 맺고 많은 外國技術者를 招致하여 그들의 技術에 依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既成 技術者나 學者들로 하여금 圖書館을 통하여 先進外國의 最新의 學術의 情報를 계속적으로 迅速히 習得하게 하는 동시에, 研究施設과 研究條件을 더욱 充實히 擴充하여 새로운 技術을 더욱 效果的으로 開發하게 하는 것이 後進性을 벗어나는 根本的인 解決策이라는 것을 明確히 認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現代의 圖書館은 技術과 産業의 絶對的인 資源이며 産業뿐만 아니라 모든 分野의 學問과 技術의 情報源으로서 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投資는 모든 分野에 걸쳐 積極的이며 健全한 效率의 生産을 위한 投資라는 것을 行政當局이 深刻하게 認識해야 할 것이다.

外國에 다녀온 우리나라의 學者들이 그 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을 돌아보지 않고 온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은 外國 圖書館의 그 龐大한 施設과 그 안에서 生動하는 그 偉力을 보고 異口同聲으로 감탄하면서 그러한 條件下에서 어떻게 學問과 技術이 發展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몹시 부러워 한다. 그와는 反對로 外國人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을 몇몇하게 구경시키고 이를 자랑해 본 事實이 있을까?

筆者는 以上の 事實들을 行政當局이 하루 속히 그리고 深刻하게 確認하고 宗廟에 國立中央圖書館을 再建하여 그 圖書館을 훌륭하게 運營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引用文獻

- 1) 「국립중앙도서관 발전계획 조사자료」(제1집). 국립중앙도서관, 1969, p. 151.
- 2) 한국도서관통계. 한국도서관협회, 1973, p. 7.
- 3) 圖書館法(法律第1424號 1963年 10月 28日 公布) 第12條 및 圖書館法施行令(1965年 3月 26日 公布 大統領令 第2086號. 改正 1967年 3月 27日 大統領令 第 294號) 第7條에 依據.
- 4) 圖書館法 op. cit. 第17條.